엄마를 기다리는 시인

시, 불교를 만나다

㉗ 여래(如來) : 기형도의 '엄마 걱정'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만, 안 계시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주눅이 든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이를 24시간 돌보고 키워냈으니 말이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사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엄마는 아이를 받들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편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가 없다는 것을 콤플렉스로 여겨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녔다. 다행히 집이 꽤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은 동네에 사는 학교 친구가 없어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없다는 비밀을 알게 된 친구가 "너 엄마 없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 친구와 주먹다짐하며 싸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지만,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받아 와도 "너 엄마 없지?"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절이었다. 엄마란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란 시를 읽으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자, 아이는 방 안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고 있다. 마침, 밖에는 처량하게 비까지 내린다. 시인에게는 늦게라도 돌아올 엄마가 있었지만, 내겐 그런 엄마가 없었다.

기형도 시인을 떠올리면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알려진 것처럼, 좋은 시재를 타고났지만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이른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대학 시절 한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1982년 대학문학상인 윤동주 문학상 시 부문에 '식목제'라는 작품이 당선된다.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던 1985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란 시가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1989년 3월 어느 날 새벽 그는 종로의 한 허름한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만 29세 생일을 엿새 앞둔 날이다. 사인은 뇌졸중이다. 시인의 아버지 역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기형도는 평소에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비관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전한다. 불행하게도 생각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유행가 가사가 떠오른다.

시인이 세상을 떠난 후 나온 유고 시집이 바로 그 유명한 〈입 속의 검은 잎〉이다. 책 제목과 같은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질투는 나의 힘', '소리의 뼈' 등의 작품이 실린 시집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엄마 걱정' 또한 맨 마지막 장에 실려 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시집의 소개말이다.

"기형도는 일상 속에 내재하는 폭압과 공포의 심리 구조를 추억의 형식을 통해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 세계는 우울한 유년 시절과 부조리한 체험의 기억들을 기이하면서도 따뜻하며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시공간 속에 펼쳐 보인다."

기형도의 시 안에 담긴 정서를 잘 표현한 것 같아 인용해 보았다. 〈입 속의 검은 잎〉 외에도 〈짧은 여행의 기록〉,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기형도 전집〉 등의 작품이 나와 그를 기억하는 독자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엄마 걱정'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열무를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간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던 일을 회상하며 쓴 작품이다. 읽기만 해도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윗목'으로 시를 마친 아이 기형도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작품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읽어 본다.

〈입 속의 검은 잎〉 유작 '요절 시인'의
엄마 기다리던 '유년의 윗목' 표현한 시
부처님 기다리는 불자 자세 생각하게 해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래, 엄마로 오신 부처님

이 시를 읽으면서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게 될 엄마를 시인은 왜 그리도 애타게 기다린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는 절대적이다. 자기 삶의 전부라는 뜻이다. 불교 영화 '대가족'에서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한 대사는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이에게 부모란 우주다.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 부모는 그 신을 간절히 섬기지. 너도 부모님께 그 섬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처럼 부모란 아이에게 온 우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다. 반면 부모에게 아이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이를 돌보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잠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모시면서 키워 낸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모의 섬김을 받고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깊이 공감하는 대목이다.

불교는 사은(四恩), 즉 이 세상에서 받은 네 가지 은혜라 해서 중생은(衆生恩), 스승은[師恩], 국토은(國土恩)과 더불어 부모은(父母恩)을 중시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 있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라는 경전도 있다. 주로 우란분재(盂蘭盆齋)가 다가오면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우란분재는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이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음력 7월 15일 참회 의식인 자자(自恣)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에게 음식과 과일, 향촉과 의복 등을 공양 올린 데서 유래한다. 오늘에도 이날이 되면 전국의 사찰에서 우란분재 기도를 봉행하고 효의 의미를 새기고 있다.

기형도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부처님이 떠올랐다. 시 속에 등장한 엄마의 모습에서 묘하게 부처님이 연상된 것이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여러 호칭 가운데 '여래(如來)'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래여거(如來如去)'의 준말인데, 진리의 세계로 가셨다가[如去] 다시 중생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如來]는 뜻이다. 왜 다시 오신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고통 속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탄생게(誕生偈)로 알려진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三界皆苦 我當安之)"는 선언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불교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인의 엄마는 시장으로 갔지만,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로 갔다. 아무리 늦더라도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처님 또한 중생들이 사는 이곳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부처님 또한 중생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이 여래라는 이름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기다리며 불자들은 오늘도 절을 한다. BTN 불교TV에서 매일 방영하고 있는 108대참회문 107번째에 있는 내용이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이처럼 불자들은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미륵 신앙에도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6억7천만 년이 지난 후에 미륵불이 오셔서 세 번에 걸쳐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믿음이다. 이를 미륵 하생신앙(下生信仰)이라 하는데,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 낳기를 바라는 상생신앙(上生信仰)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미륵 신앙은 엄마를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다려야 할까? 시인은 엄마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숙제를 마쳤다. 집에 돌아온 엄마가 힘들까 봐 방 청소도 깨끗이 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도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로 떠나면서 남긴 유훈, 즉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숙제 삼아 열심히 수행하고 이 땅을 청정하게 가꾸면서 기다려야 한다. 엄마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말이다.

그럼에도 기형도는 해는 이미 지고 자신은 마치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고 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시인은 혹여 엄마가 안 오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면서 빈방에 엎드려 홀로 울고 있다. 부처님을 기다리는 중생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을 담고 있는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에 '청불주세(請佛住世)', 즉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말씀 잘 듣는 아이처럼, 우리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삶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